

병원탐방

산업재활원 물리치료실

인천시 북구 구산동의 조용한 곳, 뒤에 울창한 숲이 있고 넓은 잔디밭과 공간을 갖춘 공기 맑고 평화스런 분위기가 감도는 곳, 이러한 곳에 산업재해환자 및 일반환자에게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목적으로 세워진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이 있다. 이곳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학적이나 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산업재해 재활센터의 전문기관은 현재 이곳 밖에 없다. 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투자기관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하며 의지공장을 비롯 인장, 시계, 표구, 원예, 금속공예 등 여러 공과들이 환자의 적성검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곳 공과에 들어가며,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전선에서 불철주야 땀흘려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어 외과적 처치를 마친 후 일정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의지제작 훈련 및 직업재활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곳은 물리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 정임 실장님을 비롯 24명의 물리치료사와 3명의 보조원이 일심동체되어 서로를 아껴주며 한결같이 친절·봉사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치료해 주고 있다.

이곳 건물 2층이 모두 물리치료실로 온열치료실, 운동치료실, 수목치료실, 전기치료실, 진단실 및 작업치료실등 각 치료실들이 전형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거대한 체계(system) 속에서 시간의 제한없이 연중무휴로 가동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돌니바퀴와도 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치료받고 있는 곳이 물리치료실이라 할 수 있겠다. 치료실 문턱마다 땀으로 가득 뻘, 그들의 노력과 치료사 모두의 노력으로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게 될 때 우리는 새삼 이곳에 오게 됨을 감사드린다. 다른일반 병원보다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병원보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이곳은 때론 힘들고, 때론 고달픈 날들이 간혹 있을지라도 그것 이상으로 치료사는 더욱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한 현장이라 할 수 있겠다.

때론 물리치료라는 정의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 육체적, 정신적 치료란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도 느낄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산업재해환자 즉, 산업전사라 할 수 있는 그들과 늘 같이 생활하며 잠시도 정신적인 치료란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늘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빽빽한 도심 속에 우뚝 솟은 빌딩 속의 한 건물이 아닌 전원의 향기 그윽한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이

곳은 육신의 고통을 창 밖의 푸른 초목과 싱그러운 휴내음을 맡고 있노라면 잠시 힘들었던 시간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을 위한 산책로가 있어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고, 약수물도 얻을 수 있어 그들은 더욱 건강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환경 조건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치료를 받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때면 더욱 더 한없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며, 내일을 향한 그들의 끈임없이 힘찬 발걸음이 우리들 마음 속에 기쁨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준다.

